

KDB리포트

KDB Report

이슈브리프

최근 우리나라 민간소비 동향 및 특징
일본의 'GX 추진기구' 설립·운영 동향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

KDB리포트

Contents

이슈브리프

최근 우리나라 민간소비 동향 및 특징	1
일본의 'GX 추진기구' 설립·운영 동향	3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	6
--------------------	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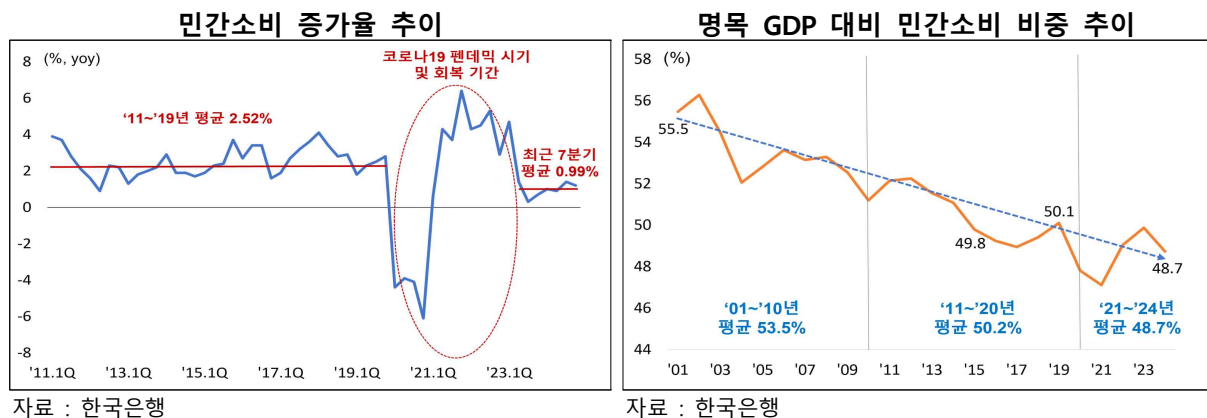
최근 우리나라 민간소비 동향 및 특징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류 용 옥 (yoryu11@kdb.co.kr)

- ◆ 최근 민간소비 증가율이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, 코로나19 이후 고금리·고물가 지속에 따른 실질구매력 감소 및 소비심리 악화가 단기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
- ◆ 단기적인 하락 요인이 해소되더라도,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민간 소비가 과거와 같은 수준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

□ 최근 민간소비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'24년에는 1.1% 증가에 그침

- '23.2분기부터 '24.4분기까지 7분기 연속 1.5% 미만의 성장을 기록하며 민간소비 성장세가 둔화되는 양상
 - 민간소비 증가율은 평균 '11~'19년 2.52%였으나, 최근 7분기는 0.99%로 대폭 하락
- 명목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로 '01년 55.5%였으나, '15년에 처음 50% 아래로 떨어진 후 '19년(50.1%)을 제외하고 50% 이하 지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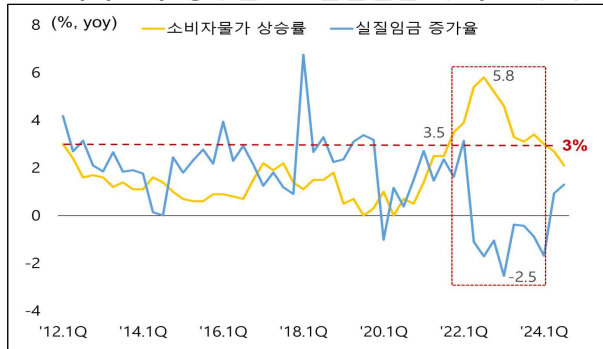
□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감소, 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이 민간소비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

- '21.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'11.4분기(4.0%) 이후 처음으로 3%를 초과하였으며, '23.4분기까지 9분기 연속 3% 초과 상태를 유지하며 고물가 현상 지속
 - 높은 물가 상승률로 실질임금이 '22.2분기부터 '24.1분기까지 8분기 연속 하락함에 따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며 민간소비 둔화
- 기준금리는 '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3.5%를 '23.1월부터 21개월간 지속하였으며, '24.10월 및 11월 각각 25bp씩 인하하였으나 여전히 3%대의 고금리 상태

- 가계부채의 확대* 기조 속에 고금리 지속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하여 소비여력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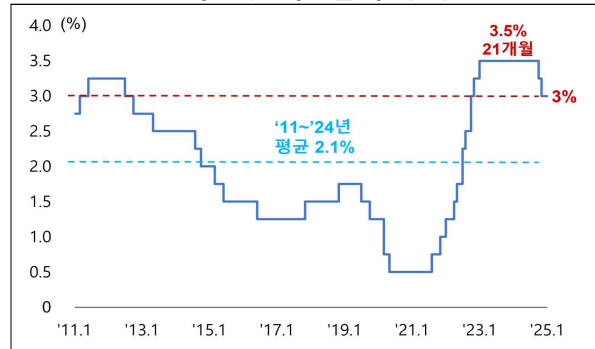
* 가계신용잔액(조원): 916('11년말) → 1,203('15년말) → 1,601('19년말) → 1,868('22년말) → 1,914('24.3Q)

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실질임금 증가율 추이



자료 : 통계청, 고용노동부

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

□ '24년 하반기 이후 물가 안정 및 금리 인하기 진입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될 여지는 있으나,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중장기적으로 과거와 같은 수준은 어려울 전망

○ 출산율이 하락세를 지속하여 '18년에 1 아래로 떨어졌으며,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며 민간소비 증가율도 하락 추세 예상

- 한국은행 잠재성장률 추정치*에 따르면, '01~'05년 5%였던 잠재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하여 '25년 이후에는 2%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**

* 이은경 외('24.12), "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", BOK 이슈노트 제2024-33호 인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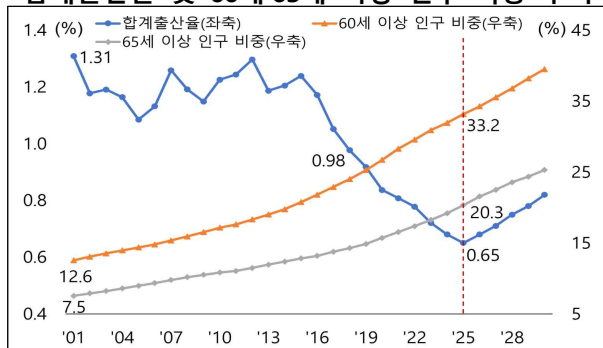
** 잠재성장률 추정치: 1.8('25~'29) → 1.3('30~'34) → 1.1('35~'39) → 0.7('40~'44) → 0.6('45~'49)

○ 노후 대비용 저축 증가 등에 따른 소비 감소 추세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, 60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이 더 크게 하락

- '15년을 기점으로 60세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이 전체 평균소비성향을 하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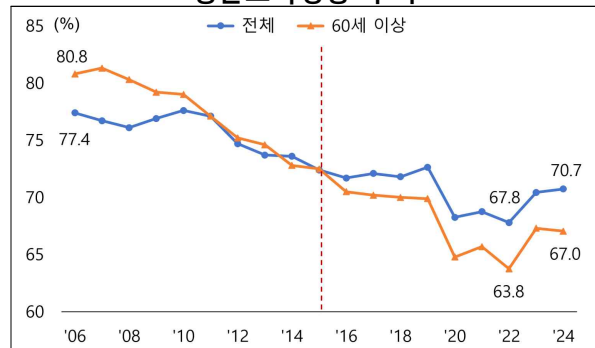
○ 이 외에도 높은 가계부채 수준 지속, 소득과 순자산이 낮은 1인 가구 확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

합계출산율 및 60세·65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



자료 : 통계청 ('24년 이후는 장래인구추계 자료로 예상치)

평균소비성향 추이



자료 : 통계청

일본의 'GX 추진기구' 설립·운영 동향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서대훈 (kdb14@kdb.c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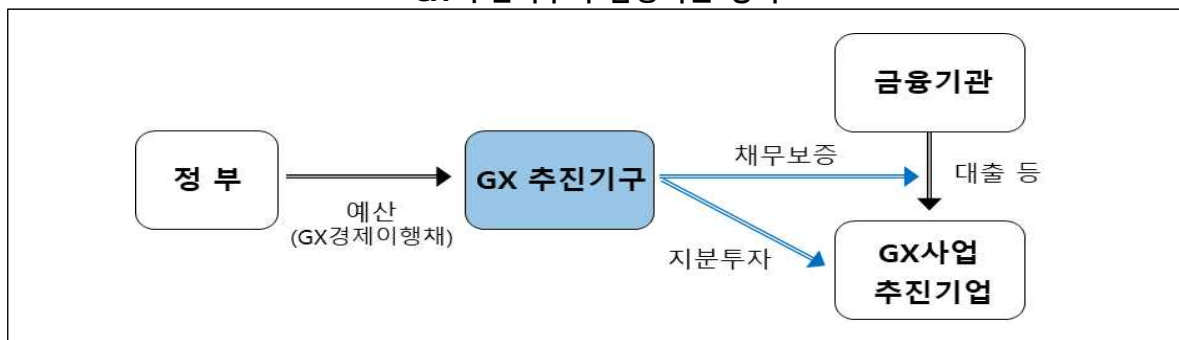
- ◆ 일본은 민간자금 유치를 통한 대규모 기후금융 지원을 위해서 'GX 추진기구'를 설립·운영중
- ◆ GX 추진기구는 정부의 GX전략에 따라 탄소배출량 감축에 중요한 주요 16개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(채무보증, 지분투자)을 확대해 나갈 예정
- ◆ 국가경제의 중요 기간산업인 철강, 화학 등의 선제적인 저탄소 전환이 중요한 시점에 따라, 일본은 녹색전환을 위한 전략 체계를 기반으로 전환금융 적극 지원중

□ 일본은 향후 10년간 150조엔의 기후금융 지원을 위해서 경제산업성 주도로 'GX 추진기구(Green Transformation* Acceleration Agency)'를 설립('24.5월)하여 업무 개시('24.7월)

* 일반적으로 Green Transition(녹색전환)이라고 표현하나, '탈탄소' 뿐만아니라 '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'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미로 만들어낸 일본의 조어임

- (업무범위) ①금융지원(채무보증, 지분투자, 회사채 인수), ②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('26년), ③화석연료 수입사업자 등으로부터의 화석연료 부과금* 징수('28년) 등의 역할 수행
- * 화석연료 부과금 = 수입되는 화석연료의 CO₂ 배출량 × 부과금 단가(단, 금액의 상·하한은 별도 설정)
- 금융지원의 경우 ①정부 전략과의 부합 여부, ②GX추진 기여 여부, ③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보완하는 사업 여부, ④지속가능사업 여부, ⑤적절한 경영·추진체계의 설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기준 충족시 해당사업을 지원

GX 추진기구의 금융지원 방식



자료 : GX推進機構 홈페이지

- (자금조달) ①「탈탄소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채(GX경제이행채)*」 발행(20조엔)에 따른 정부의 출자금과 ②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수익 및 ③화석연료 부과금 징수로 자금을 조달하며, 경제산업성을 통해 연간 예산으로 승인받아 사용

- 경제산업성의 예산안('25년)을 살펴보면, GX경제이행채 발행액은 정부의 GX사업 예산으로 사용되고 그 중 일부가 'GX 추진기구' 앞 출자금 및 사업예산으로 할당
 - * 10년간 총 20조엔 범위내에서 국회 의결로 발행하며, 국제표준에 따라 외부 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기후채권 인증 획득중으로 '24.2월~'25.1월까지 5년물 및 10년물로 총 3조엔 발행료
- GX경제이행채의 상환은 'GX 추진기구'의 화석연료 부과금('28년)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점진적 도입에 따른 유상할당('33년) 자금으로 할 예정
- (기타) GX 추진업무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'글로벌 자문단회의'나 '지역 데스크'를 설치하여 운영중
 - GX추진 관련 전문적인 조언을 수렴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, 국제적인 기관*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자문단회의('25.1월)를 구성
 - * ICMA(국제자본시장협회), 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, CDP(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), CBI(기후채권 이니셔티브) 등
 - 또한, 지역 연계를 통한 지역의 GX 실현 목적으로 홋카이도* 데스크를 설치('24.9월) 하여, 지역의 정보수집 및 사업 안건 발굴 등 실행
 - * 재생에너지, 수소, CCS 등의 유망지가 많아 '24.6월 정부로부터 'GX금융·자산운용특구'로 지정됨

□ GX 추진기구는 정부가 기설정*한 주요 16개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검토

* '23.12월 경제산업성은 GX추진을 위한 '분야별 투자전략'을 수립

- 정부가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정한 에너지전환, 운송 수단(자동차, 항공기, 선박 등) 등 탄소배출량 감축에 영향이 큰 분야에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
 - '24.7월 설립되어 금융지원 기준 설정, 인재 채용 등 조직 정비로 인하여 아직 구체적인 사례나 지원액 등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

GX경제이행채에 의한 투자 촉진안

구 분	주요 내용	민관투자
① 철강, ② 화학	제조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	8조엔 ^{주)}
③ 종이펄프, ④ 시멘트	(혁신전로, 분해로 열원의 암모니아화, 케미컬 리사이클, CCUS 등)	
⑤ 자동차	전기차(승용차, 상용차) 도입 지원	34조엔
⑥ 축전지	생산설비, 정치용(定置用) 축전지 도입 지원	7조엔
⑦ 항공기	차세대 항공기 핵심기술 개발	4조엔
⑧ 지속가능항공유	지속가능항공유(SAF) 제조 및 공급망 정비 지원	1조엔
⑨ 선박	무탄소선박 등의 생산설비 도입 지원	3조엔
⑩ 건물	가정 및 상업시설 등의 건축물 개보수, 고효율 급탕기 도입	14조엔
⑪ 자원순환	순환형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	2조엔
⑫ 반도체	파워반도체 등 생산설비 도입, AI반도체 등 기술개발 지원	12조엔
⑬ 수소	수소 등의 공급거점 정비	7조엔
⑭ 재생에너지	태양전지, 부유식 해상풍력, 수전해 장치 공급망 구축 지원 등	31조엔
⑮ 원자력	차세대 혁신로 개발 건설	1조엔
⑯ CCS	CCS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지원	4조엔

주 : 철강 3조엔, 화학 3조엔, 종이펄프 1조엔, 시멘트 1조엔

자료 : 經濟産業省(2023), "分野別投資戦略" 재구성

- 금융지원 방식으로는 지분투자 보다 채무보증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, 업무방법서상 보증은 보증기금으로 할당한 금액의 10배 한도로 지원 가능
 - 목표 민관투자액(150조엔)은 GX이행채 발행액(20조엔)만으로는 달성이 불가하여,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 'GX 추진기구'의 보증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추정

□ 일본은 기존 산업의 탄소감축에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전환 금융을 적극 지원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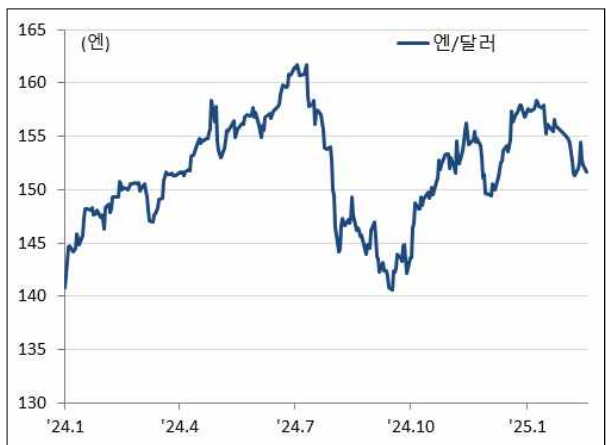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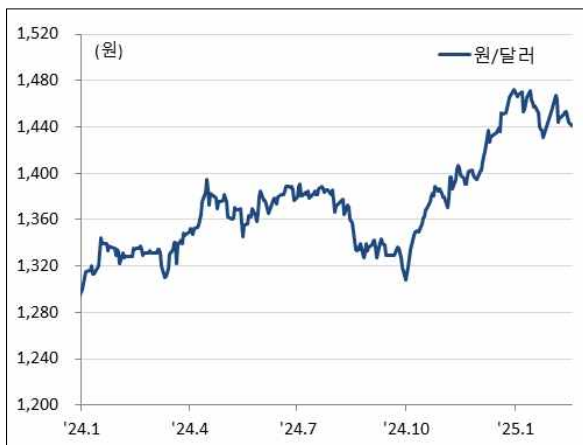
- 탄소 多배출산업의 탄소 감축을 지원하는 전환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나, 리스크가 크고 불확실하여 민간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특성상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
 - 철강, 화학, 시멘트, 자동차 산업 등은 탄소배출을 감축해야 하는 산업인 동시에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이므로 선제적인 전환이 중요하다고 판단
 - 민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나아갈 방향(기술, 산업 등)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체계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립
- 기수립된 녹색전환 전략에 따라 정부사업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'GX 추진기구'라는 전담기구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간·정부가 함께 지원해 나가는 방향을 구축·지원중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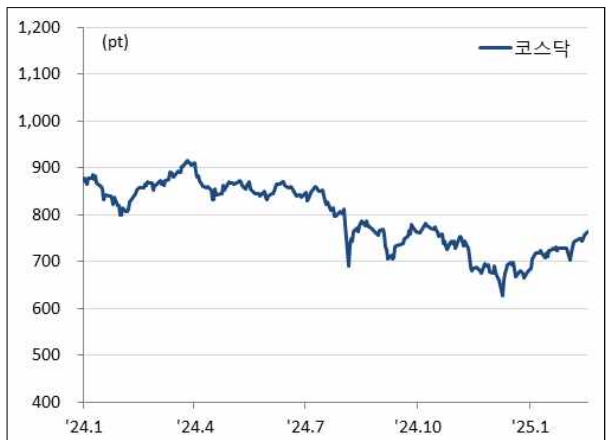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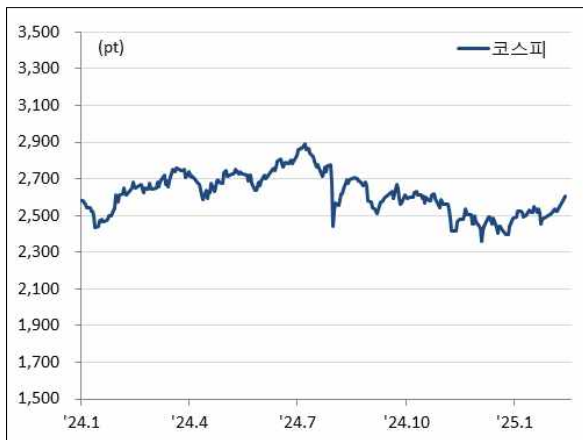
금 리 국고채3년 2.611% (3.8bp ↑), 신용스프레드 33.6bp (2.9bp ↑)



환 율 원/달러 1,440.8원 (26.4원 ↓), 엔/달러 151.68엔 (3.03엔 ↓)



주 가 코스피 2,609.18pt (6.33% ↑), 코스닥지수 765.37pt (8.75% ↑)



* ()는 전주대비 상승↑, 하락↓

KDB리포트

KDB Report

제1063호

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rd.kdb.co.kr, kdb.co.kr
문의 787.7837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